

또한 절박도축우 문제는 참으로 축산농가에 괴로움을 주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있는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축산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절박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식육 불·가 여부를 가려 축발기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금으로 폐기처분을 전적으로 맡아주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료값인상은 국제곡물가가 인상되는

마당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과 유통구조개선(각 사료회사에서 엄청난 DC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음)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소값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외적인 문제(광우병, 절박우부정도축, 0-157대장균 등)에 대하여 언론에서 너무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

낙농인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계 동
건국우유연합낙우회장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우리 낙농산업은 많은 역경과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낙농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몇번에 걸친 유대지불 체계의 변경, 사료의 지속적인 인상, 소값하락, 광우병, 절박도축우, 고름유우 파동, 0-157등 이 루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격동의 세월이 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 WTO출범 등 세계화 및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인 압력까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주위에 산적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유를 짠다는 것은 낙농육우산업이 다 그러하듯이 현 우리나라 낙농의 여건상 농후사료 의존형 목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대인상보다는 사료값의 인상폭이 높아 그에대한 차이를 농가에서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며, 96년도 7월부터 세계화 및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유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낙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된 조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선진낙농국의 국내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지사이나 우리나라의 낙농 현실이 역사적으로 보아 연륜이 짧고 전업농 규모보다는 부업농의 형태로 유지되는 규모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반감마저 가져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낙농가들이 착유실에서 착유를 시작하기 전부터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CMT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유대지불체계의 변경에 따라 좀더 좋은 등급의 원유대금을 받기 위해 검사 결과 양성판정의 개체 및 분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착유를 하여 폐기처분 시키고 있으며, 치료를 실시하여 완쾌되면 다행이나 치료 불능인 개체는 도태우로 매각을 시키는데 소값이 폭락되어 도태우 가격으로 대체우를 구입한다는 것은 농가의 가계부담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또한 치료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생, 항균물질 잔류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납유가 허용되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는데 국내 잔류물질검사 기준은 외국의 경우처럼 허용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한 폐기우의 양도 무시할 수 없어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낙농가의 한사람으로 정부당국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우리 낙농가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소값 및 사료값 안정, 정확한 항생 항균물질 허용기준치 설정등을 제시해 주고, 정확한 원유수급을 전망하고 예측함으로써 수시로 반복되는 우유 채화에 따른 낙농가에 직접적인 피해 및 유가공업체에서의 손해가 없도록 비전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낙농가들도 과거 7,80년대의 낙농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낙농가 스스로가 자각하여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완전한 가까운 고급식품인 우유가 95년 10월 유질과동과 같은 있을 수 없는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이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정부 축산 정책에 힘입어 시

설 자금을 받은 농가가 많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소값보다 시설비가 많은 농가가 대부분이니 용자금 거치 기간이 끝나고 상환기일이 되면 과연 농가가 상환 할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간다. 정부의 정책은 좋으나 농가에 불이익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시설자금도 자금이지만 거기에 맞는 운영자금도 뒤따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세균수, 체세포수 강화에 농가는 힘이들고 어렵다. 등급판정이 15일에 1-2번 밖에 통보를 하지 않으니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더해만 간다. 적어도 3일에 한번은 통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이 농가에서 체세포가 많으면 치료를 하던가 도태하던가 원유를 버리던가 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 더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급판정은 3일에 한번은 통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방화 및 세계화가 목전에 닥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유형 무형의 낙농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협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소값하락과 분유업체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낙농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협회도 최선의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낙농육우산업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만이 협회의 기본사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올해도 호당 협회비 2만5천원을 조기에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社団法人 韓國酪農肉牛場會